

진정어린 편지

어느해 겨울이었다.

남포항을 떠나 목적지로 항행하고있던 빠나마무역화물선 《와이트펠라》호가 얼음덩이에 밀리워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5일째 되는 날에 이르러 화물선이 얼음무지속에 완전히 갇히우게 되자 선원들은 본국에 즉시 무전을 쳤다.

그러나 소식이 오지 않았다.

절망에 빠진 그들은 마지막으로 남포항의 해당 기관에 무전을 날리었다.

이튿날 아침 남포항의 해당 기관으로부터 조난당한 선박을 구원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비행기가 동원되니 먹는물과 연유, 식량 등을 공급받을 준비를 하라는 무선전화가 왔다.

이윽하여 직승기가 날아왔다. 선원들은 환성을 올리며 직승기가 내려앉기 바쁘게 얼음판우로 미끄러지고 엎어지면서 달려갔다.

직승기에서 내린 남포항의 한 일군은 선원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알아본 다음 그들에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취해주신 사랑의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순간 선원들은 너무도 커다란 충격에 감사의 인사를 드릴 생각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뜨거운 격정의 눈물을 쏟았다.

선장이 선원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 감사의 편지를 올릴것을 호소하자 선원들은 그에 한결같이 호응하였다.

화물선의 선장과 선원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아 위대한 장군님께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흠모의 마음을 담아 그이께 진정어린 편지를 삼가 올리였다.